

# “독립 만세 선배 잇는다”...개교 100돌 독도 가는 초등생들

### “대한독립 만세 올려 퍼진” 나주 노안초 4월1일 개교 100돌 정문 중앙에 1929년 12월2일 독립운동 기리는 기념비 우뚝 동문회 4월13일 개교 100돌 행사서 독도 탐방 연수비 전달

학교 정문 중앙에 ‘학생독립운동 기념비’가 우뚝 서 있는 나주 노안초등학교 학생들이 개교 100돌을 맞아 선배들의 애국정신을 잇기 위해 독도 탐방길에 오른다.

나주 노안초교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3년 11월 1일 노안 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4월1일 4년제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다.

오는 4월1일 개교 100돌을 맞는 가운데 동문들이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가장 의미 있는 프로그램은 후배들에게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교훈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를 담아 ‘나주 노안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는 4~6학년 고학년 후배 22명 전원이 참가하는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추진하고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하

기로 뜻을 모았다.

독도 탐방 연수는 ‘이 땅에서 외세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치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관을 재정립 하자’는 선배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나주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였다.

전국으로 확산한 이 운동은 앞서 10월30일 광주로 통학하던 나주학생과 일본인 학생들 간 나주역에서 빚어진 충돌이 계기가 됐다.

당시 고교생이었던 독립운동가 박준재는 나주역에서 사촌누이 박기옥이 일본인 학생에게 희생을 당하자 이에 대항했고 한·일 학생간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나주에서 촉발된 한·일 학생들의 충돌은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승화돼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가

자 당시 노안 공립보통학교(현 나주 노안초교) 3회 졸업생 정찬교(鄭燦敎)와 4회 졸업생 정찬주(鄭燦洵)는 고향인 노안에서도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두 학생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지 20여일이 지난 1929년 11월23일 노안 보통학교 후배 홍달식(洪達植)을 만나 독립만세 운동 계획이 담긴 문서를 건넸다.

이후 홍달식 등은 가장 최근 학년인 4학년 생 학우들을 규합한 끝에 거사 일을 12월 2일 월요일로 확정했다.

이들은 예정대로 당일 아침 조회를 마친 직후 전교생을 이끌고 비밀리에 만든 태극기를 손에 든 채 교문을 향해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뛰쳐나갔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만세운동은 곧바로 진압됐다. 정보를 입수하고 학교 근처에 잠복해 있던 일제 경찰이 학교를 포위했고, 일

본인 교사들이 홍달식을 교장관사로 연행하면서 독립을 갈구하던 외침은 운동장 안에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홍달식은 주재소에 9일간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고 지역 유지들의 석방 운동으로 겨우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교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홍달식은 1961년 별세했지만 후손들은 모교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손길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거친 나주 노안초등학교 교정 중앙에는 당시 독립만세 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문회를 중심으로 1986년 3월 세운 기념비가 눈에 띈다.

기념비에 새겨진 ‘우리 선배들의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애국정신이 투철하였음을 후배들에게 길이 남기고자 이 사실을 여기 새겨 남기노라’고 쓴 글귀는 지울 수 없는 역사 교과서로 남아 있다.

나주 노안초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기념행사 추진위는 이날 ‘재학생·교사 독도 탐방 연수비’ 전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김선용 노안초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은 24일 “항일독립운동의 기운이 오롯



이 서린 유서 깊은 모교가 곧 100돌을 맞는 다”며 “모든 동문들은 모교가 인구절벽과 농촌소멸이라는 거센 풍파를 뜻깊이 이겨내고 200돌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영광초, ‘학부모 초대 날’ 개최

영광초등학교(교장 오경희)는 지난 22일 학부모 초대 날을 개최하였다.

먼저 학부모 공개수업이 각급 교실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교육과정 설명회가 영광초등학교 무령관에서 실시되었다. 학부모 공개수업에는 약 350명, 설명회는 1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설명회는 교직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고 2023학년도 운영위원장을 맡으신 윤원상 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맡으신 임정옥 학부모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교장의 경영관 및 교육목표와 교육 활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부모 연수가 시행됐다. 특히, 지9하는 영광초등학교 선언을 통해 학교에서는 ‘빈 교실 불 끄고 적정온도 유지하기’, 가정에서는 ‘물 받아 쓰고 아껴서 쓰기’ 실천을 다짐했다.

오경희 교장선생님은 그린스마트스쿨 공사와 그로 인한 정문 통제로 학교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걱정, 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통학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 강진 읍천초, 전교생 감자 심기 체험 실시

### 농산촌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

강진 읍천초(교장 김대성)에서는 지난 21일, 농산촌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텃밭에서 감자 심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교장 선생님께 봄 감자 심는 방법을 배우고, 학생들이 직접 흙을 파고, 구멍에 감자를 넣고, 다시 흙을 다지는 등 학생들이 일일 농부가 되어 감자 심기를 직접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겨울 동안 공평 얼었던 땅이 봄이 되면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고,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진 텃밭의 흙을 학생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호미와 모종삽으로 열심히 파낸 후, 감자 심기에 적당한 깊이로 구멍을 만들었다.

우리가 파낸 구멍이 감자가 자랄 곳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더 신경 써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기뻐했다. 구멍 속에 4분반 감자를 하



나뭇 싹을 다시 흙을 덮어주는 과정을 반복하며 감자 심는 방법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이 되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성백암중, 감성리더십 창의인성 프로그램 성료



장성백암중학교(교장 박경아)는 지난 21일 전학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교과와 연계한 감성리더십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감성리더십 창의인성프로그램은 타인에 대한 배려란 주제로 배려의 가치를 알고 실천사례 찾기 △ 관계 형성으로 소통하기란 주제로 소통카드를 활용한 친구 잠점 찾기 △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협동하기 △나만의 헌

법 만들기 △명품학교 명품나 만들기로 나의 행동 원칙 세우기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나의 헌법 선포식으로 6개의 단계별 테마로 운영되었다.

진행된 프로그램은 각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통합 주제로 학습과 연계되어 학생 주도적인 활동 과정 중심으로 알차게 운영되었다.

장성=김수권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